

[보도자료]부산국제영화제 소식(42)_(2020.10.30)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 자료

- 목차 -

- I. 개요
- II. 결산
- III. 시상
- IV.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결산
- V. 아시아프로젝트마켓 결산
- VI. 포럼 비프 결산
- VII. 커뮤니티비프 결산
- VIII. 아시아필름어워즈 결산
- IX. 2020 부산국제영화제 방역 기본 내용

I. 개요

1. 기본 개요

- 기간: 2020년 10월 21일(수) ~ 30일(금)
- 68개국 192편 상영
- 공식 선정작 상영관: 영화의전당 6개 스크린
 - * 커뮤니티비프 상영관 남포동 롯데시네마 대영

2. 총 관객수 & 온라인 관람객 수

오프라인 관객 수 (좌석점유)		온라인 참가자 수 (누적조회수)	
영화제	18,311명	포럼 비프	20,919회
커뮤니티비프	1,824명	아시아콘텐츠어워즈	4,931회
		아시아필름어워즈	4,281회
		마스터 클래스	73명
총 관객수	20,135명	총 온라인 관람객 수	30,204회

* 영화제: 18,311명 (유효 좌석수 19,909석 / 좌석점유율 92%)

* 커뮤니티비프: 1,824명 (유효 좌석수 2,108석 / 좌석점유율 87%)

* 온라인 참가자수는 2020년 10월 30일 0시 기준

* 마스터 클래스는 신청 참가자 수

3. 프로그램 이벤트

- 게스트와의 만남(GV) 135회 (온라인 90회 / 오프라인 45회)
 - * 하이브리드 1회, 현지 동시 진행 2회, 생중계 1회 포함
-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1회 (미라 네어 감독)
- 온라인 기자회견 5회

4. 아시아콘텐츠&필름 마켓 결산

- 온라인 마켓 배지: 총 45개국, 611개사, 885명
- 온라인부스: 총 20개국, 205개사, 205개 부스 (거래 콘텐츠: 833편)

II. 결산

1. 성공적인 방역과 성숙한 시민의식

관객과 시민들의 안전한 출입관리를 위해 오픈형 건물인 영화의전당 건물 외관을 모두 통제하고 8개의 게이트만 운영하였으며, 각 게이트에서는 철저한 발열체크, 손 소독, 전자출입명부(QR) 등을 진행하였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관객들의 동선을 체크하기 위한 CCTV도 운영하였다. 티켓 예매 및 입장은 모바일 티켓으로만 운영했고, 상영관 내에서는 유효 좌석수의 25%만 운영하는 등 상영관 안팎에서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였다. 절대적인 관객 수가 줄어들어 예년에 비해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까다로운 방역 절차를 따라준 관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한 운영으로 큰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무엇보다 COVID-19 상황에 온라인 상영 없이, 극장 상영으로만 개막한 국내의 첫 국제영화제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2. 높은 관객 참여율

전 회, 전 좌석 온라인 예매로 진행되었던 올해는 개막 전날까지 94%라는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였으며, 최종 좌석점유율은 약 92%였다. 비록 객석의 25% 유효 좌석만을 판매하여 영화제 총 관객 수는 18,000여 명에 불과하지만, COVID-19 시대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에 대한 관객들의 응원과 관심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관객들의 사랑과 지지가 영화제의 든든한 버팀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였다.

3. 다양한 화제작 속출

<스파이의 아내>, <트루 마더스>, <폴링>, <퍼스트 카우> 등 다양한 화제작이 주목 받았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외극장에서 선보인 작품들 <소울>, <썸머 85>, <화양연화>, <아사다 가족> 등 총 10편 중 9편이 매진되어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미나리> 등 해외 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 또한 매진 사례가 이어졌다.

4. 다양하고 새로운 GV(Guest visit) 시도

- 실시간 온라인 GV, 하이브리드 형식의 GV, 양국에서 동시 참석한 GV, GV 생중계 등

COVID-19로 해외 게스트의 참석이 전무했던 부산국제영화제는 오히려 다양한 방식의 GV 마련으로 작품에 대한 풍성한 대화의 장을 펼쳤다.

한국 영화 GV의 경우, 100% 국내 게스트 참석으로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고, 부산에 참석하지 못한 해외 게스트와는 온라인으로 현지와 연결하여 관객들은 감독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었다. 또한, 상영관에서는 배우가, 영화제에 참석하지 못한 감독과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한 하이브리드 형식의 GV도 특별했다. 특히, 베트남/태국 등 해외 현지와 부산에서 작품을 동시에 상영하고 양국 관객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동시 GV에 참석한 것은 언택트 시대에 국가를 뛰어넘는 새로운 유형의 GV로 평가받는다.

마지막으로 윤성현 감독의 <사냥의 시간> GV는 유튜브 생중계로 송출되어 현장에 직접 참석 못한 관객들에게도 출연진과의 만남의 기회를 선사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은 영화제가 COVID-19 시대에도 그 본질과 본연의 의미에 충실하게 내실을 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GV의 총 진행 횟수는 135회이며, 이 중 온라인 GV가 90회, 게스트가 직접 부산에 참석한 오프라인 GV는 45회이다.

5. 온라인 행사의 성공적인 운영

- 포럼 비프, 기자회견, 마스터 클래스, 시상식, 개별인터뷰 등

포럼 비프, 기자회견, 마스터 클래스, 시상식, 개별인터뷰 등 부산국제영화제는 극장 상영 외의 행사는 모두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언택트 시대의 맞는 행사의 유형을 마련하였다.

특히, 포럼 비프에서는 온라인 회의 시스템 도입과 이 시대에 맞는 주제로 많은 관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담론의 장이 온라인으로 확장되어 활성화되는 순간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기간 동안 누적 조회수 20,919회로, COVID-19 시대가 무색하게 역대 최고의 반응을 이끌어내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해외 현지의 감독과 배우, 국내외 프레스, 부산 현장에서의 통역과 모더레이터가 각각 접속한 온라인상에서의 기자회견 또한 어느 해 보다 높은 참석률을 보였으며, 온라인으로 진행한 미라 네어 감독의 마스터 클래스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외 온라인상에서의 개별인터뷰,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송출한 아시아필름어워즈 등도 이 시대의 새로운 행사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6. ACFM, 종합 콘텐츠&필름 마켓으로서의 가능성 확인

올해 초, 기존 아시아필름마켓에서 행사명을 바꾸고, 콘텐츠 전반의 거래가 이뤄지는 B2B마켓을 지향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은 COVID-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개최 시기와 기간을 변경하고, 온라인으로 개최 형식을 변경하였다. 온라인임에도 작년 대비 5개 업체가 증가한, 20개국의 205개 기관 및 업체가 온라인 부스를 개설하고, 833편의 콘텐츠를 등록하여 거래하였다. 특히 온라인 스크리닝을 통해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상영작 118편을 관람할 수 있어 국내외 게스트의 만족도가 높았다. 원작 판권 거래의 장인 E-IP마켓을 통해 대만, 일본의 원작까지 선보였고, 2회를 맞는 아시아콘텐츠어워즈도 국내외 시상자와 수상자를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하여 온라인 생중계 형태로 개최했다.

7. 커뮤니티비프, 청년기획단 프로그램의 성공적 안착

창의적인 '관객 참여' 프로그램의 안착과 올해 처음 시도한 '청년기획단' 프로그램의 성공 등으로 새로운 세대의 공감을 획득해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상영을 중심으로 25% 안팎의 좌석만 허용한 아쉬움은 총 46회차 상영 중 37회가 매진되며 남포동을 방문한 1,824명 관객들의 열기로 보상되었다. 커뮤니티비프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며 운영진과 관객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복합문화축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Ⅲ. 시상

1. 뉴 커런츠상

수상작 1: <유코의 평형추> / 하루모토 유지로 (일본)

심사평: 뉴 커런츠상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다음 두 영화에게 상을 수여합니다. 접근 방식, 디렉팅 그리고 연기의 미묘함으로 #MeToo 운동과 캔슬 컬처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정확하게 반영하며 미스터리와 의심, 객관성과 죄책감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인상 깊은 방법으로 그려낸, 하루모토 유지로 감독의 <유코의 평형추>에게 첫 번째 상을 수여합니다.

수상작 2: <쓰리> / 박루슬란 (카자흐스탄/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심사평: 실화를 다루는 거의 초현실주의적인 방법, 독창적인 내러티브 접근 방식과 독특한 음악, 때로는 부조화의 분할로 연쇄살인범에 대한 고전적 고정관념들을 야키 카우리스마키식으로 재창조한 박루슬란 감독의 <쓰리>에게 두 번째 상을 수여합니다.

*** 뉴 커런츠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미라 네어 (감독 / 미국)
- 심사위원: 티에리 조방 (프리부르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 스위스)
양혜규 (설치미술가 / 대한민국)

2. 지식상

수상작 1: <성스러운 물> / 나비드 마흐무디 (아프가니스탄/이란)

수상작 2: <잔혹한 도축장> / 아바스 아미니 (이란)

심사평: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지식상 심사는 여러모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모두들 잘 알고 있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을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논의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부산국제영화제는 예외 상황을 주시하면서 현명하고도 훌륭하게 이에 대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부산국제영화제의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세 명의 심사위원은 각자의 나라, 각자의 도시, 각자의 모니터로 지식상 후보작들을 보는 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선정을 위한 회의였습니다. 올해 지식상을 위한 심사는 줌(ZOOM) 화상회의 방식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낯선 환경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우리 심사위원들은 후보작들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들으면서 마치 마주 앉은 것처럼 친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여섯 편의 후보작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 진지했고 또한 미학적으로 때로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의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결국은 어디에 있더라도 영화를 만드는 우리들의 숙제는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문제라는 결론에 함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은 여섯 편의 영화의 장점과 함께 각자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히 나눈 끝에 두 편의 영화를 수상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상작은 아바스 아미니의 <잔혹한 도축장>와 나비드 마흐무디의 <성스러운 물>입니다. 이 두 편의 영화는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아시아 영화를 위해 애쓴 부산국제영화제 전(前) 프로그래머 김지석이 미래의 아시아 영화를 위해 애썼던 그 마음에 대한

우리들의 올해의 대답입니다. 두 분 감독님에게 축하드립니다. 함께 후보작이었던 네 분 감독님에게도 좋은 영화를 보여주신 것에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지식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자오 타오 (배우 / 중국)

정성일 (영화평론가, 감독 / 대한민국)

물리 수리야 (감독 / 인도네시아)

3. 비프메세나상

수상작 1: <생존의 기술> / 미나 케샤바르츠 (이란/독일)

심사평: 올해 비프메세나상 후보작들은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작품이 강력한 내용과 개성적인 스타일,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인의 비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부문 작품들의 주제는 다시 한번 아이들과 젊은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전쟁과 가난과 그들의 인간성을 억누르는 사회제도의 희생자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항하고 맞서고 자신들의 삶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투쟁하는 아이들입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후보작들은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어떠한지에 대한 견고한 시선을 제시합니다. 이 작품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어둡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펼칩니다. 이 중에 빼어난 작품이 한 편 있습니다. 이 사회참여적인 작품에서 감독은 자신의 개인적인 가족사를 끌어와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일부가 됩니다. 올해 비프메세나상 수상작은 이란 감독 미나 케샤바르츠의 <생존의 기술>입니다. 축하합니다.

수상작 2: <재춘언니> / 이수정 (대한민국)

심사평: 심사위원단은 먼저 모든 후보작이 각각의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이어서 무척 즐겁게 관람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신중하게 토론하였고 만장일치로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때, 그는 그 싸움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한 감독이 어떤 사람에 관한 다큐멘터를 만들고자 결심했을 때, 감독은 그 여정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긴 기간 영화를 만들다 보면 지치거나 의기소침해지거나 또는 길을 잃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감독은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4,464일간의 투쟁을 이어가는 한 인물의 걸을 지키면서 강인하고도 통찰력 있는 인간의 신념을 영화에 담아냈습니다. 올해 비프메세나상의 한국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이수정 감독의 <재춘언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특별 언급: <셀프-포트레이트 2020> / 이동우 (대한민국)

심사평: 이 영화는 한국 다큐멘터리계의 경향과 제작 시스템에서 훌쩍 벗어나 있습니다. 대신 감독이 심취한 인물의 기행과 궤변을 기록하고 종로에 머무는 홈리스들 곁을 맴돌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동우 1인 제작 방식의 용감함이 만들어낸 즉흥성과 활력, 직관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 비프메세나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닉 데오캄포 (감독 / 필리핀)

찰리다 우아붐렁짓 (태국필름아카이브 원장 / 태국)

박인호 (영화평론가 / 대한민국)

4. 선재상

수상작 1: <조지아> / 제이 박 (대한민국)

심사평: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선재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물론 팬데믹이 잔인한 장난을 치긴 했지만, 모든 이의 건강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작품들의 전반적인 수준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작품들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이제 선재상의 한국 수상작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감독은 민감한 사회적 의제를 제기합니다. 또 작품은 작가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표현주의적인 영화 언어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 태만이 불러일으킨 결과와 그것이 어떻게 인간 비극으로 이어지는지를 매우 다채롭게 묘사해냈습니다. 올해 선재상 한국의 수상작은 제이 박 감독의 <조지아>입니다. 축하합니다!

수상작 2: <호랑이> / 카비주램 퓨레브-오기어 (몽골/영국)

심사평: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의 영화감독 겸 프로듀서 이파 이스판샤입니다. 한국의 김이석, 카자흐스탄의 샤리파 우라즈예바로 꾸려진 선재상 심사위원단을 대표하여 저희의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발상, 처리, 실행까지 모두 균형이 좋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모든 요소는 서로를 지지하며 담백한 방법으로 관객들에게 강한 영화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영화를 깔끔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작품성까지 겸비한 영화입니다. 우리는 또한 카메라 워킹, 스토리의 내적 갈등과 감정을 실은 배우들의 연기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두 세대 간의 차이, 서로 다른 관점을 묘사하는 다층적인 영화로, 몽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아시아 전역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작품은 젊은이들의 욕망과 열정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이런 이유로 몽골 출신의 감독의 카비주램 퓨레브-오기어 감독의 <호랑이>에게 단편영화상인 선재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선재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이파 이스판샤 (감독 / 대한민국)
샤리파 우라즈바예바 (감독 / 카자흐스탄)
김이석 (교수 / 대한민국)

5. 올해의 배우상

수상자 1: <기쁜 우리 여름날> / 지수 (대한민국)

심사평: 움츠러든 삶을 살고 있는 흙수저 청춘은 사랑조차 불안합니다. 한없이 축복받아야 할 젊음은 현실 앞에서 왜소하기만 합니다. 자신을 옥죄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조차 안으로 다스려야 하는 여린 영혼을 지수 배우는 정직하고 담담하게 연기했습니다. 내면으로 응축된 분노를 표면이 아니라 인물 깊은 곳에 저장해두고, 관객의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인물에 동의하게 만드는 지수의 연기는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춘의 아픔을 호소력 있게 그려냈습니다.

수상자 2: <파이터> / 임성미 (대한민국)

심사평: 선정이유는, 극 중 복합적인 갈등상태에 있는 새터민 리진아라는 인물을 밀도 높은 내면 연기로, 마치 다큐를 보듯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입니다. 인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한 사회에서 겪는 차별에 대한 설움과 극복 의지, 자기를 버린 엄마에 대한 분노와 그리움 등 난이도 높은 양가감정들을 고요한 집중력으로 한 호흡도 지나치지 않고 구현해냈습니다.

***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추상미 (배우 / 대한민국)
정진영 (배우 / 대한민국)

6. 플래시 포워드상

수상작: <타이거즈> / 로니 산달 (스웨덴/이탈리아/덴마크)

심사평: 관객 투표(심사평 없음)

7. 국제영화평론가협회(FIPRESCI)상

수상작: <희미한 여름> / 한슈아이 (중국)

심사평: <희미한 여름>은 상처받기 쉬운 한 십 대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통해 우리 시대의 사회, 경제적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고도 우아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잘 짜인 구조와 디테일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운데 영화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소비 지상주의에 맞서는 사랑과 연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제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제영화평론가협회(FIPRESCI)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알른 타지안 (국제영화평론가협회 사무차장 / 터키)
사냐 스투르나 (영화평론가 / 슬로베니아)
성일권 (영화평론가 / 대한민국)

8.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수상작: <파이터> / 윤재호 (대한민국)

심사평: 안녕하세요, 피렌체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피렌체한국영화제 위원장 리카르도 젤리입니다. 2020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심사위원단이 선정한 영화는 윤재호 감독의 <파이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북한 반체제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윤재호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스타일로 새로운 삶에 도전하며 마주하게 되는 복잡성을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연 여배우의 놀라운 연기는 관객들로 하여금 대사에 현혹되지 않고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사회적 편견과 성차별에 맞서야만 하는 여성들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가족을 떠나 그들의 삶을 재건할 수 밖에 없는 북한의 반체제 인사들의 어려운 삶에 주목하는 윤재호 감독의 방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 심사위원: 리카르도 젤리 (피렌체한국영화제 집행위원장 / 이탈리아)
하산 무탈리브 (작가, 평론가, 감독/말레이시아)
김경욱 (영화평론가/한국)

9. 한국영화감독조합상-메가박스상

수상작 1: <어른들은 몰라요> / 이환 (대한민국)

수상작 2: <좋은 사람> / 정욱 (대한민국)

심사평: 비전 부문의 심사는 대개의 상식적인 심사 기준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훨씬 엄격합니다. 영화의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새로운 시선과 마주하고 도전적인 질문을 받을 준비로 긴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 위에 '영화'를 비범하게 핸들링하는 숨씨까지 보이면 설령 그 작품이 데뷔 작품이라도 우리 심사위원들은 그를 충분히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우리는 그런 작품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관심을 받아 마땅한 여러 작품 중에서 특히 <어른들은 몰라요>는 감독과 배우, 스태프 구성원이 그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했는지를 뽐내듯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나쁜 세상을 조금 덜 나쁜 생각과 몸짓으로 흡수하며 건디는 아이들. 설령 세상의 어느 특수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되며 공감이 되는 이유는 영화가 모르는 것에 대해 변명하거나 아는 체하는 대신 거칠더라도 솔직함을 무기로 끝까지 버티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인물과 사건이 주제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봉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부서지고 맙니다. 감독의 대단한 결기입니다. 젊음이 부서지면서 맞이하게 되는 미래의 세상이 어떨지 어른들은 모릅니다. 실은 아이들도 모를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영화의 필수 조건은 좋은 시나리오라는 명제를 새삼 확인시켜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란 질문을 던지고, 차분하면서도 집요한 어조로 그에 대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감독의 결론에 대한 동의여부는 관객의 몫이겠지만 요란 떨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찍어내고 마는 감독의 패기만큼은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0. CGV아트하우스상

수상작: <좋은 사람> / 정욱 (대한민국)

심사평: 어떤 영화가 아트하우스상을 수상하게 되더라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번 심사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단 한 편의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훌륭한 작품들 가운데 과연 '진실'이란 무엇이고, '좋은 사람'이란 어떤 의미인지라는 철학적 질문을 짜임새 있는 드라마와 안정적인 연기, 긴박감 있는 플롯 등을 통해 높은 영화적 완성도로 풀어낸 이 작품에 아트하우스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상작은 <좋은 사람>입니다.

11. KTH상

수상작 1: <최선의 삶> / 이우정 (대한민국)

심사평: 학교라는 울타리가 세상의 전부인 시절, 아직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여고생들의 심리와 복잡다단한 관계를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서로에게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각자의 진심과 그 마음과는 달리 표현되는 모습 속에서 쌓이게 되는 오해들. 당시에는 사소하게 여겨졌던 그 순간들의 선택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치명적으로 작용하는지를 감독의 사려 깊은 시선으로 시사합니다. 디테일한 연출과 다층적인 감정을 훌륭하게 표현해 낸 배우들의 연기로 돋보이는 값진 작품을 만들어주신 이우정 감독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KTH상을 드립니다.

수상작 2: <어른들은 몰라요> / 이환 (대한민국)

심사평: 위태롭게 보드를 타는 소녀로 비유되는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시기, 10대 청소년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입니다. 높은 몰입도와 완성도를 보이며 뇌리에 박히는 인상적인 장면들을 마주할 수 있었으며, 대체 불가로 여겨지는 이유미 배우의 연기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볼 수 없었던, 혹은 다른 이들이 하기 꺼려 했던 이야기를 고집하는 감독님의 시선과 최대치의 리얼리

티를 선사하는 연출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음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하는 반짝이는 작품을 만들어주신 이환 감독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KTH상을 드립니다.

12. KBS독립영화상

수상작: <라임크라임> / 이승환, 유재욱 (대한민국)

심사평: <라임크라임>은 청춘의 고민을 전시하거나 착취하지 않으면서 만들어낸 신선한 청춘 영화라 느꼈습니다. 무리하거나 과장함 없이 서사를 끌어가는 안정감과 균형감, 지금의 청춘 세대와 한국 로컬 문화가 녹아 있는 디테일까지 독립영화의 새로운 미덕을 갖춘 작품이었습니다.

13. CGK&삼양XEEN상

수상작: <최선의 삶> / 이재우 촬영감독 (대한민국)

심사평: 이재우 촬영감독의 촬영은, 되게 주인공의 감정선을 따라서 유기적으로 호흡하는 촬영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핸드헬드가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배우들을 따라가는 신마다 이렇게 미세한 핸드헬드의 느낌이 감정선을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정적인 카메라를 통해서 이야기 안에서 흔들리며 방황하는 주인공의 감정을 세세하게 섬세하게 아주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자체가 과하지 않게 이야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절제된 빛과 다양한 샷 사이즈를 통해서 조금 더 리듬감을 만들어서 이야기가 조금 더 풍성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IV.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결산

1.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결산 통계

- 온라인 마켓 배지: 총 45개국, 611개사, 885명
 - 온라인부스: 총 20개국, 205개사, 205개 부스 (거래 콘텐츠: 833편)
 - 온라인 스크리닝
 - 마켓 스크리닝: 총 20개국, 77개 업체, 296편 (마켓 프리미어 194편)
 - 영화제 선정작: 총 118편 (약 1,200회 관람 횟수 기록)
 - E-IP마켓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 총 225회 (한국, 대만, 일본, 총 35편 선정)
-
- 역대 최초의 전면 온라인 개최로 종합 콘텐츠마켓으로서의 가능성 확인
 - 온라인부스, 작년 대비 증가한 참가 기관 및 업체와 거래 가능한 콘텐츠로 다양성 확보
 - 온라인 스크리닝,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상영작을 해외에서도 볼 기회 제공
 - E-IP마켓, 대만, 일본의 국가기관의 주도적인 참여
 - 제2회 아시아콘텐츠어워즈 온라인 생중계 개최, 성공적인 연착륙

2. 아시아콘텐츠어워즈 수상자 (수상자/작 | 국적 | 작품)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 다이잉 프로듀서 | 중국 | <은비적각락>
- 모완일 프로듀서 | 대한민국 | <부부의 세계>

[베스트 아시아 드라마]

- <라스트 마담> | 싱가포르
- <동백꽃 필 무렵> | 대한민국

[남자 배우상]

- 장샤오취안 배우 | 대만 | <희생자 게임>
- 주지훈 배우 | 대한민국 | <킹덤 S2>

[여자 배우상]

- 김희애 배우 | 대한민국 | <부부의 세계>
- 쿠로키 하루 배우 | 일본 | <나기의 휴식>

[작가상]

- 김은희 작가 | 대한민국 | <킹덤 S2>

[신인상 - 남]

- 룡쯔산 배우 | 중국 | <은비적각락>
- 파리스 인타라코말리야솿 배우 | 태국 | <인 패밀리 위 트러스트>

[신인상 - 여]

- 플렌피차야 코말라라준 배우 | 태국 | <원 이어>
- 전미도 배우 | 대한민국 | <슬기로운 의사생활>

[기술상 - 비주얼 이펙트]

- 매드맨포스트 | 대한민국 | <킹덤 S2>

[인기상]

- 디리러바 배우 | 중국 | <삼생삼세 침상서>
- 키르티 쿨하리, 사야니 굽타, 만비 가그루, 구르바니 저지 | 인도 | <포 모 어 샷스 플리즈! S2>
- 리린 드위 아리얀티 배우 | 인도네시아 | <듀이>

[공로상]

- ABS-CBN 방송국 | 필리핀
- 아뮤즈 사 | 일본 | <심야식당>

[특별상]

- 김혜수 배우 | 대한민국 | <하이에나>
- 아라키 유코 배우 | 일본

V. 아시아프로젝트마켓 결산

1. 아시아프로젝트마켓(APM) 결산 통계

- 운영 방식: 전면 온라인
- 총 선정 프로젝트 수: 14개국 21편
(최초 22편에서 1편 참가 취소/2019년 총 29편)
- 공식 비즈니스 미팅 횟수: 총 461건(2019년 총 796건, 최종 선정 프로젝트 편 수 감소 및 미팅 1회당 진행시간 증가로 인한 미팅 가능 횟수 감소)
- 총 참가자 수: 156개 업체 169명(2019년 127개 업체 144명)
- 온라인 개최로 폴란드, 스웨덴, 아랍에미레이트 등 신규 참가국 증가(총 8개국)

2. APM 어워드 수상 결과 (수상 프로젝트 | 감독명 | 프로듀서명 | 제작국가)

[부산상]

- 너의 가치 | 키슬레이 | 슈웨타브 싱 | 인도

[CJ엔터테인먼트어워드]

- 체크 표시 | 짠 탕 휘 | 응우옌 바오, 부이 래 낫 티엔 | 베트남

[아르떼키노상]

- 인간 창조 | 래 빈 장 | 래 꾸인 안, 파눅스미 하드조위로고 | 베트남, 싱가포르

[모네프상]

- 무심한 듯 시크하게 | 이명세 | 강문석, 임원택 | 대한민국

VI. 포럼 비프 결산

올해 포럼 비프에서는 시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12개 세션이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문화 및 영화산업의 변화를 살펴보는 세션을 비롯,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를 기념해 '콘택트 존'으로서 영화제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고찰하는 시간, 사회적 논쟁의 영역인 젠더와 페미니즘, 광주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항쟁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그려보는 세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포럼 비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개최를 결정, 전 세계 많은 인원이 참가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1. 기간: 2020년 10월 22일(목) ~ 27일(화)

2. 방식: 온라인 포럼 (줌(ZOOM)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 후 일주일간 게시)

3. 참가규모

- 참가 및 세션: 6개 단체, 12개 세션

- 참가자

: 실시간 스트리밍 동시 시청자 수 1,078명 (세션당 평균 약 90명)

: 누적 조회수 20,919회 (세션당 평균 약 1,703회)

* 10월 29일 13시 30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이며 향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

4. 주제 및 프로그램

1) 21세기 한국영화의 젠더정치학

2) 문화 콘텐츠로 읽는 5.18의 미래

- 3)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의 영화제와 러시아 영화의 전통 (러시아 영화의 위대한 유산1)
- 4) 우리 안의 러시아 영화 (러시아 영화의 위대한 유산2)
- 5) 부산국제영화제 25년: 성찰과 전망
- 6)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영화제의 미래 (콘택트 존으로서의 영화제1)
- 7) 국제영화제의 지정학과 아시아 (콘택트 존으로서의 영화제2)
- 8) 경계 너머의 영화제 (콘택트 존으로서의 영화제3)
- 9)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삶의 양식과 문화의 변화 (코로나19 시대의 삶과 영화1)
- 1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영화 (코로나19 시대의 삶과 영화2)
- 11)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영화제 (코로나19 시대의 삶과 영화3)
- 12) 마스터 클래스 워크숍: 카메라야 놀자!

Ⅶ. 커뮤니티비프 결산

관객이 만드는 축제 커뮤니티비프(Community BIFF)는 창의적인 '관객 참여' 프로그램의 안착과 올해 처음 시도한 '청년기획단' 프로그램의 성공 등으로 새로운 세대의 공감을 획득해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상영 중심으로 25% 안팎의 좌석만 허용한 아쉬움은 총 46회차 상영 중 37회가 매진되며 남포동을 방문한 1,824명 관객의 열기로 보상되었다. 커뮤니티비프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비대면화는 관객과의 대화 생중계, 커뮤니티비프 앱 리플시네마, 부산관광공사와 협업한 커비로드(Community BIFF Road) '랜선 여행' 콘텐츠 제작 등으로 '언택트' 영화제를 구현했다. 커뮤니티비프는 관객과 수평적 관계로 소통하고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며 복합문화축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1. 기간: 2020년 10월 22일(목) ~ 25일(일)

2. 장소: 남포동 롯데시네마 대영

3. 상영프로그램 횟수: 총 46회 (이벤트 상영 포함) ※ 매진 회차 37회

4. 참가규모: 관객 1,824명 (전체 2,108석 중 좌석점유율 87%)

5. 주요 내용

- 리퀘스트 시네마 (26회): 신청하는 영화관/ 커뮤니티시네마
- 리스펙트 시네마 (9회): 마스터톡/ 단편영화관/ 장국영의 결정적 순간/ 엔딩, 크레딧/ 스마트시네마 중국영화특별전
- 리액션시네마 (1회): 상상시네마: what is next?
- 원도심 특별전 (6회): 리멤버부마 2020/ 고이 접어 둔 추억이 당신의 '오늘'이었던 날
- 커비로드 (총 8건: 4회 GV 포함): 맛의 도시 부산/ 항구 도시 부산/ 영화 도시 부산/ 관광 도시 부산

Ⅷ. 아시아필름어워즈 결산

■ 작품상

작품명	제작 국가 및 지역
기생충	대한민국

■ 감독상

수상자	작품명	제작 국가 및 지역
왕샤오슈아이	나의 아들에게	중국

■ 신인감독상

수상자	작품명	제작 국가 및 지역
히카리	37초	일본

■ 남우주연상

수상자	작품명	제작 국가 및 지역
이병헌	남산의 부장들	대한민국

■ 여우주연상

수상자	작품명	제작 국가 및 지역
저우둥위	소년시절의 너	홍콩,중국/중국

■ 남우조연상

수상자	작품명	제작 국가 및 지역
카세 료	지구의 끝까지	일본/우즈베키스탄/ 카타르

■ 여우조연상

수상자	작품명	제작 국가 및 지역
사만다 코	아호, 나의 아들	대만

■ 신인상

수상자	작품명	제작 국가 및 지역
이양첸시	소년시절의 너	홍콩,중국/중국

■ 각본상

수상자	작품명	제작 국가 및 지역
봉준호, 한진원	기생충	대한민국

■ 편집상

수상자	작품명	제작 국가 및 지역
양진모	기생충	대한민국

■ 촬영상

수상자	작품명	제작 국가 및 지역
동징송	와일드 구스 레이크	중국/프랑스

■ 음악상

수상자	작품명	제작 국가 및 지역
카쉬 칼레, 셸비지 오디오 콜렉티브	걸리 보이	인도

■ 의상상

수상자	작품명	제작 국가 및 지역
파차린 수라와타나폰스	너를 정리하는 법	태국

■ 미술상

수상자	작품명	제작 국가 및 지역
이하준	기생충	대한민국

■ 시각효과상

수상자	작품명	제작 국가 및 지역
토미 쿠오, 레노바티오 픽처스	반교: 디텐션	대만

■ 음향상

수상자	작품명	제작 국가 및 지역
쿠레이시 요시후미	꿀벌과 천둥	일본

IX. 2020 부산국제영화제 방역 기본 내용

1. 기본 개요

-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방역 자문단 운영
- 방역 지침 의무 준수한 극장 상영 운영 및 온라인 행사 운영
- 의료진 상시 대기

2. 출입 관리

- 영화의전당 전 구간 바리케이트 설치 및 통제
- 입장 게이트 지정 운영 및 게이트별 경호 인력 배치
- 입퇴장 시 거리두기 준수
- 사각지대 없는 CCTV 증설: 관객 동선 운영 총 CCTV 65대

3. 출입 절차 5단계

- KF 인증 마스크 착용 필수
- 사회적 거리두기 입장
- 발열 측정 및 손 소독
- 전자출입명부(QR) 체크인
- 손목입장밴드 착용

4. 티켓 운영

- 유효 좌석 25% 운영
- 전 좌석 온라인 티켓팅 및 모바일 티켓 운영

5. 상영관 운영

- 1편 1회 상영
- 생수 외 반입 불가
- 매회 상영 종료 후 접촉구간 소독 및 환기, 매일 상영 종료 후 1회 공간 소독

6. GV 운영

- 오프라인 GV: 게스트 간 2M 거리 유지 및 투명 가림막 설치
- 온라인 GV: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게스트 연결

- 관객 질문은 오픈채팅방 사용 (관객 마이크 미사용)

7. 스태프 관리

- 전 기간 KF94 마스크 착용 및 매일 자가문진 설문 제출
- 매회 입출입 시 전자출입 등록, 발열 체크 및 손 소독